

장인적 학습, 삶의 질, 장인적 성취 간의 관계 분석: 무용 전공자를 중심으로

이진영* 경희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무용 전공 직군인 안무가, 교육자, 무용수를 대상으로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 및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440명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자가보고 방식으로 직군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관계망', '통합적 학습'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장인적 성취에는 모든 세부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특히 '자주적 학습'은 장인적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삶의 질은 일부 요인에서 장인적 성취를 매개하였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직군별로 장인적 학습의 영향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안무가는 도구를 통한 학습만이 장인적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자는 학습 집념이 삶의 질에, 그리고 자주적 학습과 열린 학습관계망,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무용수는 학습 집념, 통합적 학습,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 분야에서 장인적 학습 이론 및 선행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직군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주요어 : 장인적 학습, 삶의 질, 장인적 성취, 무용 전공, 안무가, 교육자, 무용수

I. 서론

장인성(匠人性, mastery)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삶과 일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다. 오늘날 장인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을 통해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이호진 외, 2021). 이러한 장인성에 기반한 학습은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서 지속적인 실천과 반성을 통해 역량을 확대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최솔 외, 2021). 이처럼 장인성은 기술과 태도의 복합 개념으로, 자기 효능감이나 직무 만족과는 달리, 실천적 지속성과 사회적 기여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정체성 기반 개념으로 이해된다.

장인적 학습은 실천 중심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이는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무용 전공자에게 춤은 단순한 표현 수단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학습과 성장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무용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가 융합된 전인격적 예술활동으로, 반복적인 훈련과 창의적 탐색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적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된다(차은주, 안병순, 2017; 최선, 2003; 홍애령 외, 2011; 허민지, 김주연, 2022). 특히 무용은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정서적·주관적 예술 장르이므로, 무용 전공자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확장해야 한다(김초하, 2022; 태혜신,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장인적 학습은 단순한 직무 훈련이 아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 충족을 통해 개인의

*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무용학박사, puddig02@naver.com

삶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12)과 직무특성 이론(Hackman, Lawler, & Oldham, 2015)의 틀과도 연결된다. 전자는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기반으로 인간의 내적 동기를 설명하며, 후자는 과업 정체성, 기술 다양성, 과업 중요성 등의 속성을 통해 직무 만족과 성과를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은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구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무용 전공자에게 있어 장인으로서의 성장은 삶의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삶의 질은 무용 전공자의 예술 활동 지속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신체 건강, 사회·심리적 안녕, 자율성, 통제감, 경제적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무용 활동과도 밀접히 관련된다(김만규, 2023; 서재성, 김수경, 2022). 예술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무용수는 반복되는 훈련과 심리적 긴장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공연을 수행해야 하기에, 삶의 질은 단순한 개인 만족을 넘어 예술적 몰입과 창작 역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여주, 이광호, 2007; 박승순, 한미경, 2024; 오혜성, 변상해, 2020; 이명자, 2022; 이미숙, 2020).

이러한 조건 속에서 무용 전공자들은 예술적 지표로서 성취를 추구하게 된다. 성취는 결과물 그 자체보다는 예술적 열정과 자기 효능감, 타월성, 자긍심 등을 반영하는 복합적 개념이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장인적 성취(masteristic achievement)로 정의한다(유보람 외, 2024). 무용 전공자는 작품을 완성하거나 무대에서 관객과 평단의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자각하는 순간에 장인적 성취를 체감한다(김주연, 장유경, 2016; 송시윤, 2019; 이명자, 2017; 황성우, 최석환,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적 학습과 성취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조직행동이나 경영학적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임파워링 리더십과 장인적 학습의 관계 또는 학습이 조직몰입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장경진, 이호진, 장원섭, 2021; 이진희 외, 2024; 이호진 외, 2021), 장인적 성취 역시 직무 재구성이나 일의 의미를 매개로 성과를 설명하는 방향에 머물렀다(유보람, 김근호, 장원섭, 2024; 이민영, 장원섭, 2024).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또한 노인, 장애인, 가족, 청소년 등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술가나 무용 전공자와 같이 정서적·신체적 활동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직군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드물다(구선영, 2018; 김성민, 문희원, 2024; 신정택, 박윤식, 2024).

특히 무용 전공자는 신체 수행과 정서 몰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수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질과 장인적 학습·성취 간의 구체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기존 연구들은 조직성과 향상이나 사회복지 중심의 시각에 편중되어 있으며, 예술 노동의 특수성과 내면적 성취 요소를 통합적으로 조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무용의 특성상 정량화하기 어려운 창작 만족감, 심리적 성취감 등은 단순한 직무성과로 환원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라는 특수 집단에 주목하여,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무용 전공자는 단순한 예술 표현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성찰을 통해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현대적 장인이다. 이들의 학습 태도와 삶에 대한 만족은 예술의 질과 지속성은 물론, 사회문화적 기여와도 직결된다.

특히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 내 세 직군(안무가, 교육자, 무용수)을 비교 분석하여,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직군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무용 전공자는 예술성과 직무 특성, 학습 방식, 성취 경로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각 직군은 이에 상응하는 고유의 학습 구조를 지닌다. 예를 들어, 안무가는 창작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상상력과 구성 능력을 발휘하고(임선영, 2018), 교육자는 지식 전달과 학습 촉진을 통해 타인과의 성취를 추구하며(최경희, 2011), 무용수는 반복 훈련과 무대 경험을 통해 직접적인 예술성과 성취를 체화하는 경향이 있다(권선영, 2017).

이러한 직군별 특성은 장인적 학습과 삶의 질, 성취 간 관계에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 연구는 무용 전공자를 하나의 동질적 예술가 집단으로 간주하여 직군 간 변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화하고 있다(박재윤, 정승혜, 안병주,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의 직군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직군 간에 비교함으로써, 교육 및 정책적 등에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무용이라는 신체적·예술적 실천이 단순한 표현 행위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직업적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며, 장인적 학습의 실제적 가치와 효용을 예술 분야에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RQ1.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RQ2. 장인적 학습이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RQ3.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RQ4.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무용 전공 직군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며, 서론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특히, 이들 변수 간 관계가 무용 전공 직군(안무가, 교육자, 무용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직군별 학습 특성과 성취 구조의 이질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 근거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장인적 학습, 삶의 질, 장인적 성취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구조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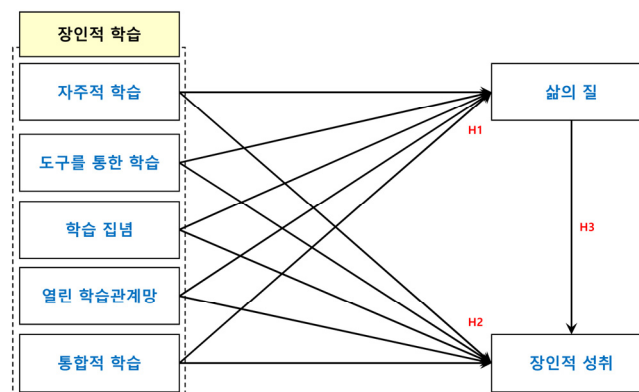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무용 전공 직군(안무가, 교육자, 무용수)을 대상으로,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 및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장인적 학습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자주적 학습,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관계망, 통합적 학습)이 각각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가설 구조는 표 1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1. 연구가설

가설	내용
가설1	장인적 학습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자주적 학습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도구를 통한 학습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학습 집념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열린 학습관계망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통합적 학습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장인적 학습은 장인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자주적 학습은 장인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도구를 통한 학습은 장인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학습 집념은 장인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열린 학습관계망은 장인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5	통합적 학습은 장인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삶의 질은 장인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무용 전공 직군인 안무가, 교육자, 무용수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직군별 비교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군 비율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인구 분포와 응답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안무가, 교육자, 무용수 응답자를 각기 확보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접근이 어려운 일부 지역 및 단체에 대해서는 기초 응답자 또는 단체 대표가 지인·동료·구성원에게 설문지를 추천·전달하는 방식의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표본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무용 분야의 네트워크 기반 특성과 비공식 조직 구조를 반영한 적절한 표집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11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울, 경기, 부산, 전북, 전남 지역의 직업 무용 단체 및 무용 교육기관(초·중·고, 대학교·대학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직군 구분은 응답자가 자신의 실제 활동 비중과 직업 정체성을 기준으로 직접 선택하는 자가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 서두에는 세 직군에 대한 간략한 정의(예: ‘주로 안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기관에서 무용을 지도하는 자’, ‘공연 활동 중심의 무용가’)를 제시하였다. 각 응답자는 이 설명을 참고하여 자신의 주요 활동 영역에 가장 부합하는 하나의 직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표집 절차와 직군 구분 기준은 응답자의 직무 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존중하는 동시에, 직군별 구조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최종적으로 440명의 유효 표본이 확보되었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세 직군 모두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고, 직군별 특성에 따른 장인적 학습, 삶의 질, 장인적 성취 간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N=440)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173
	여성	267
나이	10대	6
	20대	198
	30대	168
	40대	40
	50대	17
	60대	11
결혼	미혼	348
	기혼	92
종교	무교	270
	기독교	85
	천주교	30
	불교	52
	그 외 종교	3
직군 (무용전공)	안무가	140
	교육자	145
	무용수	155
직무경력	1년~3년(미만)	205
	3년~5년(미만)	24
	5년~7년(미만)	93
	7년(이상)	118
무용경력	1년~5년(미만)	49
	5년~10년(미만)	77
	10년~15년(미만)	139
	15년~20년(미만)	93
	20년(이상)	82
소득수준 (월평균)	100만원(미만)	140
	101만원 - 200만원	120
	201만원 - 300만원	115
	301만원 - 400만원	40
	401만원 - 500만원	16
	501만원(이상)	9
사는 곳	서울	204
	경기	160
	인천	22
	강원	7
	충청	14
	호남	20
	경상	13

4. 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는 총 세 개의 주요 변수인 장인적 학습, 삶의 질, 장인적 성취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모두 국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기반으로 하되,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일부 문항은 어휘 조정 및 표현 수정을 통해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을 보완하였다.

첫째, 장인적 학습은 자주적 학습,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관계망, 통합적 학습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별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장경진, 이호진, 장원섭(2021)의 장인적 학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그리고 장인적 학습과 장인적 성취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이정아(2024)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둘째, 삶의 질은 김홍규, 유현정(2004)의 한국 성인의 삶의 질 척도 개발, 그리고 민성길 외(2000)의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척도를 참고하여 5문항을 선정·조정하였다. 셋째, 장인적 성취는 총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이정아(2021)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헌에서는 장인적 성취를 다차원적 성과(성과, 자긍심, 수월성)로 이론화하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변수의 측정도구

변수	세부요인	측정항목	연구자
장인적 학습	자주적 학습	1 나는 자발적으로 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한다.	·장경진, 이호진, 장원섭(2021) ·이정아(2024)
		2 나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파악한다.	
		3 나는 상급자의 지시 없이도 업무 관련 지식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한다.	
	도구를 통한 학습	1 나는 업무에 적합하거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나 도구를 꾸준히 탐색한다.	·장경진, 이호진, 장원섭(2021) ·이정아(2024)
		2 나는 업무 관련 자료나 도구를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 나는 업무에 유용한 자료나 도구를 발견하면 직접 적용해 본다.	
	학습 집념	1 나는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한다.	·장경진, 이호진, 장원섭(2021) ·이정아(2024)
		2 나는 설정한 목표를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달성하려 한다.	
		3 나는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한다.	
	열린 학습관계망	1 나는 직장 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학습 기회를 모색한다.	·장경진, 이호진, 장원섭(2021) ·이정아(2024)
		2 나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 관련 통찰력과 정보를 확보하려 한다.	
		3 나는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다.	
	통합적 학습	1 나는 수집된 자료와 기록을 재검토하며 학습한다.	·장경진, 이호진, 장원섭(2021) ·이정아(2024)
		2 나는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3 나는 과거의 오류나 실패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삶의 질	-	1 나의 가정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김홍규, 유현정(2004) ·민성길 외(2000)
		2 나의 교육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3 나의 경제·노동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4 나의 사회복지·보건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5 나의 안전·환경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장인적 성취	-	1 나는 숙련된 업무 수행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정아 (2024)
		2 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3 나는 업무 성과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4 나는 업무 수행에서 최고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	
		5 나는 업무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 장인적 학습(리커트 5점 척도: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

주) 삶의 질(리커트 5점 척도: 1점=매우 낮음 ~ 5점=매우 높음)

주) 장인적 성취(리커트 5점 척도: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

5.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이 0.7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측정 도구가 내적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문항은 동일한 개념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신뢰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표 4. 신뢰도 분석

변수	세부요인	측정항목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장인적 학습	자주적 학습	1 나는 자발적으로 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한다.	0.754
		2 나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파악한다.	
		3 나는 상급자의 지시 없이도 업무 관련 지식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한다.	
	도구를 통한 학습	1 나는 업무에 적합하거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나 도구를 꾸준히 탐색한다.	0.896
		2 나는 업무 관련 자료나 도구를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3 나는 업무에 유용한 자료나 도구를 발견하면 직접 적용해 본다.	
	학습 집념	1 나는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한다.	0.789
		2 나는 설정한 목표를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달성하려 한다.	
		3 나는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한다.	
	열린 학습관계망	1 나는 직장 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학습 기회를 모색한다.	0.700
		2 나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 관련 통찰력과 정보를 확보하려 한다.	
		3 나는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다.	
	통합적 학습	1 나는 수집된 자료와 기록을 재검토하며 학습한다.	0.742
		2 나는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3 나는 과거의 오류나 실패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삶의 질	-	1 나의 가정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0.851
		2 나의 교육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3 나의 경제·노동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4 나의 사회복지·보건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5 나의 안전·환경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장인적 성취	-	1 나는 숙련된 업무 수행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0.764
		2 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3 나는 업무 성과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4 나는 업무 수행에서 최고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	
		5 나는 업무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 0.70

2) 타당도 분석

SmartPLS 프로그램을 활용한 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모든 측정 항목은 적절한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따르면, 요인 적재값은 최소 0.686 이상,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는 최소 0.841 이상, 평균 분산 추출(AVE) 값은 최소 0.515 이상으로, 모든 지표가 수렴 타당성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 문항들이 각 구성 개념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측정 모델이 신뢰성과 수렴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타당도 분석

변수	세부요인	측정항목	집중 타당도		
			요인 적재 값	합성 신뢰도	AVE
장인적 학습	자주적 학습	1 나는 자발적으로 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한다.	0.792	0.859	0.670
		2 나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파악한다.	0.845		
		3 나는 상급자의 지시 없이도 업무 관련 지식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한다.	0.817		
	도구를 통한 학습	1 나는 업무에 적합하거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나 도구를 꾸준히 탐색한다.	0.928		
		2 나는 업무 관련 자료나 도구를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0.905		
		3 나는 업무에 유용한 자료나 도구를 발견하면 직접 적용해 본다.	0.898		
	학습 집념	1 나는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한다.	0.807		
		2 나는 설정한 목표를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달성하려 한다.	0.866		
		3 나는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한다.	0.842		
장인적 성취	열린 학습관계망	1 나는 직장 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학습 기회를 모색한다.	0.771	0.841	0.515
		2 나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 관련 통찰력과 정보를 확보하려 한다.	0.769		
		3 나는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다.	0.830		
	통합적 학습	1 나는 수집된 자료와 기록을 재검토하며 학습한다.	0.801		
		2 나는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0.807		
		3 나는 과거의 오류나 실패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0.827		
	삶의 질	1 나의 가정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0.746		
		2 나의 교육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0.799		
		3 나의 경제·노동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0.788		
		4 나의 사회복지·보건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0.812		
		5 나의 안전·환경영역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0.803		
장인적 성취	-	1 나는 숙련된 업무 수행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0.748	0.841	0.515
		2 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0.711		
		3 나는 업무 성과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0.700		
		4 나는 업무 수행에서 최고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	0.686		
		5 나는 업무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다.	0.741		

주) 요인 적재 값(Outer Loadings) > 0.60

주)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0.70

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 0.5

6.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는 SPSS 27.0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직군별 분포 및 표본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설문 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martPLS 4.1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s Alpha와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를, 타당도 검증에서는 요인 적재값, 평균 분산 추출(AVE) 등을 통해 내적 일관성과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인 간의 관계 수준을 사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가설의 방향성과 구조적 관계를 예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SmartPLS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변수 간 개념적 구분의 명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SmartPLS를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평가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평균 분산 추출(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상관관계수보다 클 경우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에 제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각 변수 간 상관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측정 항목이 해당 변수에 고유하게 수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변수 간 개념적 구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판별 타당도를 충족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측정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변수	자주적 학습	도구를 통합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 관계망	통합적 학습	삶의 질	장인적 성취
자주적 학습	0.818	-	-	-	-	-	-
도구를 통합 학습	0.545	0.910	-	-	-	-	-
학습 집념	0.614	0.574	0.839	-	-	-	-
열린 학습 관계망	0.573	0.567	0.623	0.791	-	-	-
통합적 학습	0.573	0.537	0.601	0.649	0.812	-	-
삶의 질	0.307	0.408	0.417	0.407	0.391	0.790	-
장인적 성취	0.549	0.501	0.568	0.547	0.541	0.435	0.718

주) 대각선(음영)은 AVE 제곱근(Square Root)을 의미함.

2. 가설검정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 기법 중 부분 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s, PLS)을 활용하여 가설 검정을 수행하였다. PLS-SEM은 모형 구조의 복잡성이 높을 때에도 분석이 용이하며, 형성적(Formative) 및 반영적(Reflective) 측정 모형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개 및 조절 효과 분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An et al., 2025; Jung, 2023; Kim et al., 2022a; Kim et al., 2022b; Kim et al., 2022c; Kim et al., 202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martPLS를 활용하여 무용 전공 직군(안무가, 교육자, 무용수)을 대상으로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표 7 및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장인적 학습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 중 도구를 통한 학습($\beta=0.191$, $p<.01$), 학습 집념($\beta=0.184$, $p<.01$), 열린 학습관계망($\beta=0.138$, $p<.05$), 통합적 학습($\beta=0.122$,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설 1-2]부터 [가설 1-5]까지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무용 전공자들이 다양한 학습 도구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꾸준히 학습에 몰입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피드백을 얻는 경험이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주적 학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1]은 기각되었으며, 이는 학습의 자율성만으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교육 환경이나 외부 자원과의 상호작용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장인적 학습과 장인적 성취 간의 관계에서는 모든 하위 요인인 자주적 학습,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관계망, 통합적 학습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부터 [가설 2-5]까지 모두 채택되었다. 특히 자주적 학습($\beta=0.199$, $p<.01$)은 가장 높은 경로계수를 보여, 무용 전공자에게 있어 자율적인 목표 설정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장인적 성취를 형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beta=0.165$, $p<.01$)은 장인적 성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이는 무용 전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성 및 전반적인 삶의 질(만족)이 직업 활동에서의 몰입과 성취감, 나아가 예술적 역량 발휘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표 7. 가설검정 결과

No	가설	경로	β	M	SD	t	p	채택여부
01	H1-1	자주적 학습 → 삶의 질	-0.059	-0.057	0.059	1.000	0.318	기각
02	H1-2	도구를 통한 학습 → 삶의 질	0.191	0.192	0.056	3.388	0.001	채택
03	H1-3	학습 집념 → 삶의 질	0.184	0.182	0.063	2.935	0.003	채택
04	H1-4	열린 학습관계망 → 삶의 질	0.138	0.133	0.060	2.317	0.021	채택
05	H1-5	통합적 학습 → 삶의 질	0.122	0.129	0.062	1.975	0.049	채택
06	H2-1	자주적 학습 → 장인적 성취	0.199	0.200	0.047	4.241	0.000	채택
07	H2-2	도구를 통한 학습 → 장인적 성취	0.085	0.084	0.041	2.090	0.037	채택
08	H2-3	학습 집념 → 장인적 성취	0.171	0.169	0.060	2.838	0.005	채택
09	H2-4	열린 학습관계망 → 장인적 성취	0.124	0.130	0.050	2.510	0.012	채택
10	H2-5	통합적 학습 → 장인적 성취	0.133	0.132	0.059	2.243	0.025	채택
11	H3	삶의 질 → 장인적 성취	0.165	0.165	0.048	3.424	0.001	채택

주) SRMR=0.061, NFI=0.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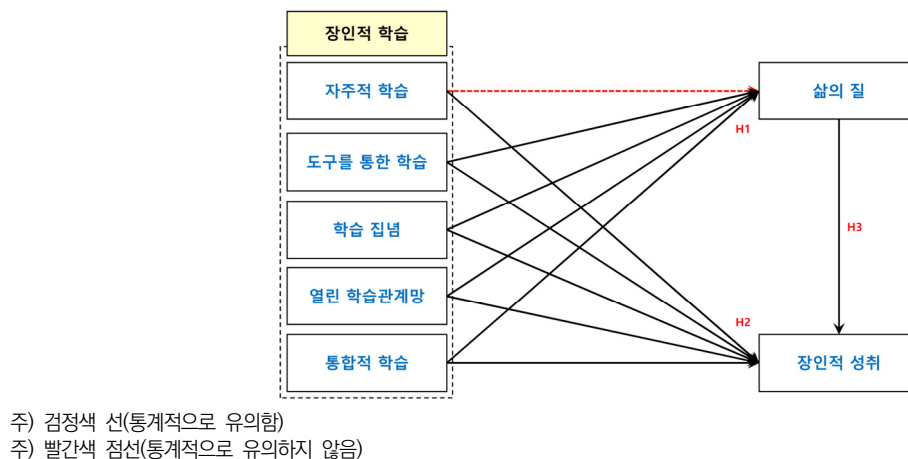


그림 2. 가설검정 결과

3. 매개효과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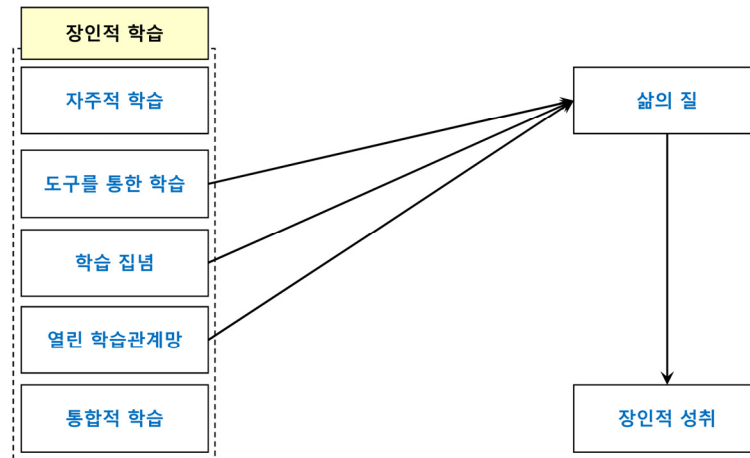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가설검정 이외에 장인적 학습이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삶의 질이 매개 변수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인적 학습 → 삶의 질 → 장인적 성취의 간접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표 8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도구를 통한 학습($\beta=0.032$, $p<.05$), 학습 집념($\beta=0.030$, $p<.05$), 열린 학습관계망($\beta=0.023$, $p<.05$)은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장인적 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무용 전공자가 다양한 학습 자원에 몰입하거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과정이 삶의 질을 일정 수준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직업적 성취감과 예술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삶의 질이 특정 학습 요인과 성취 간의 연결을 간접적으로 조율하는 보조적 기제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무용 전공자의 학습 경험 설계 시 삶의 질을 고려한 환경적·심리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간접효과와 경로계수는 전반적으로 0.02~0.03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서는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8. 매개효과 검정

No	경로	β	M	SD	t	p	매개 효과
01	자주적 학습 → 삶의 질 → 장인적 성취	-0.010	-0.010	0.011	0.910	0.363	×
02	도구를 통한 학습 → 삶의 질 → 장인적 성취	0.032	0.032	0.014	2.243	0.025	○
03	학습 집념 → 삶의 질 → 장인적 성취	0.030	0.030	0.014	2.190	0.029	○
04	열린 학습관계망 → 삶의 질 → 장인적 성취	0.023	0.022	0.011	2.048	0.041	○
05	통합적 학습 → 삶의 질 → 장인적 성취	0.020	0.021	0.012	1.678	0.094	×



주) 검정색 선(매개효과)

그림 3. 매개효과 검정

4. 무용전공 직군 간 비교

앞선 가설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 및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무용 전공 직군별(안무가, 교육자, 무용수)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다집단 분석 결과, 각 직군이 중시하는 학습 요인과 그 영향력의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 특성과 성취 기준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표 9 및 그림 4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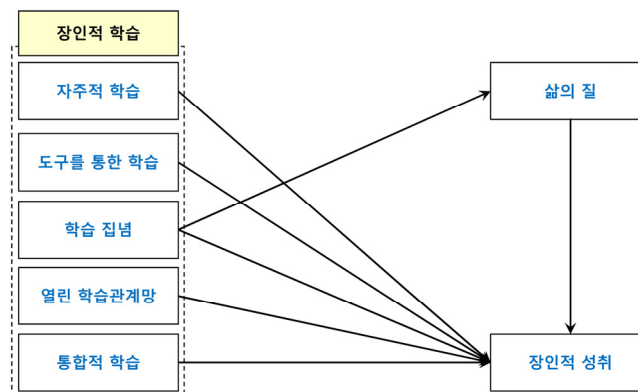
우선,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교육자 집단에서만 학습 집념($\beta=0.235$,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자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수법 개발과 같은 학습 지속성이 삶의 질(만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안무가 집단($\beta=0.178$)과 무용수 집단($\beta=0.197$)에서는 도구를 통한 학습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p>.05$). 이 결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학습보다는 신체적 수행 환경이나 정서적 조건, 또는 외부적 요인일 가능성을 함의한다.

다음으로, 장인적 학습이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직군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자 집단은 자주적 학습($\beta=0.310$, $p<.01$)이 가장 큰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교육자의 직무 성취에 핵심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무용수 집단은 통합적 학습($\beta=0.236$, $p<.05$)이 유의하게 장인적 성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론과 실기의 통합이 신체 기반 예술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반면, 안무가 집단에서는 도구를 통한 학습($\beta=0.144$, $p<.05$)이 장인적 성취에 약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직군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무용수 집단($\beta=0.196$, $p<.05$)과 교육자 집단($\beta=0.167$, $p<.05$)에서는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안무가 집단($\beta=0.160$, $p>.05$)은 유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유사한 방향의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무용수의 경우, 삶의 질이 곧 신체적 수행력과 정서적 몰입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성취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무용전공 직군 간 비교

No	경로			안무가			교육자			무용수			결과
				β	t	p	β	t	p	β	t	p	
01	자주적 학습	→	삶의 질	-0.003	0.024	0.981	-0.003	0.031	0.976	-0.108	0.937	0.349	×
02	도구를 통한 학습	→	삶의 질	0.178	1.657	0.098	0.129	1.358	0.175	0.197	1.806	0.072	×
03	학습 집념	→	삶의 질	0.090	0.661	0.509	0.235	1.999	0.046	0.185	1.610	0.108	○
04	열린 학습관계 망	→	삶의 질	0.113	0.930	0.353	0.094	0.913	0.362	0.177	1.716	0.087	×
05	통합적 학습	→	삶의 질	0.110	0.920	0.358	0.104	1.009	0.314	0.145	1.296	0.196	×
06	자주적 학습	→	장인적 성취	0.125	1.442	0.150	0.310	4.034	0.000	0.085	0.950	0.343	○
07	도구를 통한 학습	→	장인적 성취	0.144	2.032	0.043	0.063	0.800	0.424	0.166	1.880	0.061	○
08	학습 집념	→	장인적 성취	0.179	1.668	0.096	0.101	1.078	0.282	0.188	1.978	0.048	○
09	열린 학습관계 망	→	장인적 성취	0.168	1.807	0.071	0.189	2.066	0.039	0.047	0.493	0.622	○
10	통합적 학습	→	장인적 성취	0.113	1.224	0.222	0.064	0.688	0.492	0.236	2.154	0.032	○
11	삶의 질	→	장인적 성취	0.160	1.730	0.084	0.167	2.229	0.026	0.196	2.520	0.012	○



주) 검정색 선(안무가, 교육자, 무용수 집단 간 차이 발생)

그림 4. 무용전공 직군 간 비교

IV. 논 의

본 연구는 무용 전공 직군인 안무가, 교육자, 무용수를 대상으로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직군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무용 분야에서 장인적 학습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무용은 일반 직종과 달리 예술성과 신체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특수한 학습 환경 속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 방식, 성취 기준, 정서적 만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본 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장인적 학습의 영향 구조, 삶의 질의 매개 효과, 직군 간 차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장인적 학습의 하위 요인 중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관계망, 통합적 학습이 무용 전공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정적·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학습 경험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김만규, 2023; 서재복, 임명희, 2021; 이승영, 최지영, 2021).

특히 도구를 통한 학습은 물리적 실천과 감각의 객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무용수는 거울, 동영상, 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체 움직임을 점검하며 반복적으로 개선하고, 안무가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동작을 시각화하고 음악과의 조화를 실험한다. 교육자 역시 영상 콘텐츠나 실시간 공유 플랫폼을 통해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도구는 단순한 보조 장치를 넘어서 학습의 통제감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전공자의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질(만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학습 집념 또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 예술의 성취가 오랜 시간의 반복과 몰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일치한다. 무용수는 체력과 감정 표현 능력 유지를 위해 꾸준한 훈련을 수행하고, 안무가는 창작 과정에서의 좌절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교육자는 교육 콘텐츠의 반복적 개발과 피드백을 통해 교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김귀원, 2014; 김형남, 2022). 이처럼 지속성과 몰입은 피로를 동반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취감과 자존감, 정서적 보상을 동시에 유도하는 심리적 자원이 된다.

열린 학습관계망의 효과 역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동료나 멘토와의 상호작용, 공동 창작, 사회적 피드백과 같은 학습 환경이 무용 전공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의미한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고립된 작업 환경이 심리적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중심의 학습 구조는 정체성 확립과 창의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유경훈, 2013).

통합적 학습은 이론과 실기, 감성과 기술을 결합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 경험을 촉진한다. 이는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자기 성찰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유도하며, 예술 교육의 핵심 가치와도 일치한다(정향진, 류경민, 2010).

반면, 자주적 학습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흥미로운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은 긍정적 요인으로 간주되지만, 무용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는 분야에서는 단순한 자율성만으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외부 피드백, 정서적 지지, 안정된 환경과 같은 보완적 자원이 병행될 때에야 학습 만족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주성만으로는 고립감과 정서적 소진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무용 전공자에게는 균형 잡힌 지원 체계와 공동체 기반 학습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장인적 학습이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장인적 학습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 모두가 장인적 성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주적 학습은 가장 높은 경로계수를 보여, 무용 전공자에게 있어 자기주도성은 예술적 성취와 전문성 강화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는 뚜렷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취를 중심으로 한 직업적 성장과 결과 산출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무용수는 연습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반복 수행을 통해 퍼포먼스를 개선하며, 안무가는 창작 목표를 능동적으로 설정하여 예술적 실험과 표현을 시도한다. 교육자는 교수법과 교육 콘텐츠를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유보람 외, 2024). 이러한 자율 기반 학습 태도는 장기적으로 예술적 독창성과 직무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외의 요인들인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관계망, 통합적 학습도 모두 장인적 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① 도구를 통한 학습은 신체 움직임의 시각화, 동작의 디지털 분석, 교수 자료의 정교화 등 기술 반복과 개선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무용인의 성취 역량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다. ② 학습 집념은 시행착오를 감내하며 창작 및 교육 활동의 완성도를 높이는 추진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무용이라는 장르의 본질인 반복, 인내, 미세 조정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성숙 과정과 긴밀히 맞물린다. ③ 열린 학습관계망은 동료, 멘토, 제자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피드백과 협업이 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며, 이는 성취의 질적 심화와 창의성 강화에 직결된다. ④ 통합적 학습은 감성, 이론, 실기 요소를 통합하는 학습 방식으로, 예술 창작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성취를 예술적 완성도로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인적 성취가 단순한 기술 숙련이나 기능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자의 태도, 사회적 관계망, 이론적 내면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 성취 구조임을 시사한다. 즉, 장인적 성취는 결과로서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과정 중심의 학습 구조, 지속 가능한 예술 정체성, 공동체적 성장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된 개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3. 삶의 질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삶의 질은 장인적 학습과 장인적 성취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관계망이 삶의 질을 경유하여 장인적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습 경험에서 파생된 인지적 안정감과 정서적 만족감이 성취의 촉진 요소로 기능함을 시사한다(권순표, 김근호, 2022). 즉, 학습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삶의 질(만족)이 직무 몰입과 예술적 성과를 매개하는 경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의 심리적 조정 기능이 강조된다.

다만, 이러한 매개효과의 β 값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0.02~0.03)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해석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한다. 이는 삶의 질이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취에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영향이 존재하더라도 절대적인 핵심 변인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특히 자주적 학습과 통합적 학습은 삶의 질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장인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주도성 및 이론-실기의 융합 역량이 무용 전공자의 성취에 있어 독립적으로 강력한 예측력을 지닌 요소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학습 특성은 심리적 만족이나 정서적 안정이 매개되지 않더라도 목표 달성과 직업적 성취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고효능 학습 경로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은 장인적 성취에 이르는 단일 경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자 정신적 자원으로 학습의 지속성과 성취의 심리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매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예술교육 실천에 있어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지원 체계(예: 상담, 안정된 교육 환경, 정서적 피드백) 구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4. 무용전공 직군 간 차이

다집단 분석 결과, 무용 전공 직군 간 장인적 학습 및 성취 구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직군의 직무 특성, 요구되는 역량, 성취 경로가 상이함을 반영하며, 장인적 학습이 직군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교육자 집단에서는 자주적 학습과 학습 집념이 성취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자의 직무가 지속적인 교수법 개발, 교육 콘텐츠의 혁신, 학습자 중심의 설계 등 자기 탐색적 학습 활동을 핵심으로 요구한다는 점과 부합한다(김주연, 장유경, 2016). 이들은 독립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형성하며, 반복적 시도와 몰입을 통한 성과 추구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무용수 집단은 통합적 학습과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수가 신체적 수행성과 정서적 안정을 통해 예술적 완성도를 구현하는 직무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무용수는 반복 훈련과 몰입을 통해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며, 이론적 기반은 감정 표현과 예술적 해석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차은주, 안병순, 2017). 또한 이들은 자신의 신체 상태와 삶의 질(만족)이 직접적으로 무대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이 성취의 구조에서 핵심 매개자로 작용한다.

안무가 집단에서는 도구를 통한 학습이 장인적 성취에 약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그 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안무가의 직무 특성이 창작 중심의 비정형적 활동, 높은 불확실성, 정서적 압박감을 수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삶의 질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p = .084$), 이는 창작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요인이 삶의 질(만족)을 일정 부분 저해하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안무가의 경우, 장인적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도구의 효율적 활용, 협업 기반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서적 안정성과 창작 여건 보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이명자, 2017; 이정아, 2024). 이와 같이 직군별 분석 결과는 무용 전공자의 학습과 성취가 직무의 본질과 요구 역량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무용 교육 및 정책 설계에서 직군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며, 장인적 학습이 일률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학습 구조임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들이 수행하는 장인적 학습이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무용수, 안무가, 교육자 등 직군 간 비교를 통해 직무 특성에 따른 학습 기제와 성취 메커니즘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무용이라는 예술성과 신체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특수한 학문 분야에 장인적 학습 이론을 접목함으로써, 해당 이론의 예술 분야 적용 가능성과 학문적 확장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 이하에서는 연구 결과의 종합적 해석과 함께, 이론적·정책적 기여 및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 요약 및 종합 해석

연구 결과, 장인적 학습은 무용 전공자의 삶의 질과 장인적 성취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학습관계망', '통합적 학습'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무용 전공자들이 기술적·사회적·이론적 자원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통합할수록 정서적 안정과 직업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주적 학습'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장인적 성취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무용 전공자들이 성취와 성장의 주체로서 강한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와 학습 방식이 직접적인 성과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자주적 학습은 삶의 질(만족)보다 성취 중심의 동기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학습 요인으로 해석된다.

삶의 질은 장인적 학습과 성취 간의 관계에서 일부 요인에 대해 매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도구를 통한 학습', '학습 집념', '열린 관계망'은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장인적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학습 환경 속에서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가 성취 경험을 뒷받침하는 정서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매개 효과의 계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beta = 0.02 \sim 0.03$)으로 나타나, 삶의 질이 성취의 보조적 기제로 기능하되 결정적 변수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직군별로는 장인적 학습의 영향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안무가는 도구를 통한 학습이 장인적 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교육자는 학습 집념이 삶의 질에, 자주적 학습과 열린 학습관계망,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용수는 학습 집념, 통합적 학습,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전공자의 학습과 성취 구조가 일률적인 패턴이 아닌, 직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경로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무용 교육 및 지원 정책에서는 직군 맞춤형 접근 전략이 필수적이며, 장인적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직무의 본질에 적합한 교육 및 환경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이론적 기여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기여는 장인적 학습 이론의 적용 영역을 예술 분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장인적 학습 개념은 주로 기능직, 기술직, 제조업 등에서의 직무 숙련과정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창의성과 감성, 표현이 중심이 되는 예술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감각적이고 신체 기반의 예술 장르인 무용에 적용함으로써, 실천성과 정서성이 융합된 학습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인적 학습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이 삶의 질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구성됨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습 구성 요소 간의 기능적 차이를 이론적으로 드러냈다. 예를 들어, 자주적 학습은 성취에, 도구를 통한 학습과 학습 집념은 삶의 질에, 통합적 학습은 직군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이론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분화와 정교한 이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삶의 질이라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학습과 성취 간의 중간 경로에서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는 구조를 실증함으로써, 전통적 학습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특히 예술 종사자에게 있어 정서적 안정성이 성취 유지 및 향상의 핵심 요소로 기능함을 뒷받침하며, 장인적 학습이 단지 기술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자아 실현과 사회적 성장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학습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군 간 비교를 통해 무용 전공자 내부에서도 이질적인 학습 구조와 성취 경로가 존재함

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예술교육에 있어 ‘직군별 맞춤형 접근’의 이론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다소 일반화되어 있던 예술교육 모델을 재검토하고, 세분화된 이론적 틀의 정립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3. 실천적·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의 학습 및 성취 과정에 있어 다층적인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며,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직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필요성이다. 연구 결과, 무용 전공자의 학습 구조는 직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육자에게는 자기주도적 연구 및 성찰 중심의 커리큘럼이, 무용수에게는 이론과 실기를 통합한 교육 모듈이, 안무가에게는 디지털 도구와 창작 소프트웨어 활용 중심의 실습 기반 학습 환경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군 맞춤형 접근은 교육부 및 예술교육기관의 교재 개발, 강사 양성 체계, 교육 콘텐츠 구조의 다각화를 요구한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인 복지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이 장인적 성취에 기여하는 정서적 기반 변수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무용 전공자의 심리 상담, 신체 재활, 정서적 피로 관리, 직업 안정성을 포괄하는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예술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 연계, 창작휴가 제도,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 기반의 학습 관계망 구축이 중요하다. 열린 학습관계망은 학습 지속성과 성취감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무용 전공자 간 교류, 멘토링 시스템, 동료 피드백 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교육자 및 예술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거나, 물리적 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학습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장인적 학습 기반의 자격제도 및 평가 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 무용 교육 및 예술 창작은 비공식적인 성과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계적인 학습 성과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장인적 학습의 하위 요인을 반영한 예술인 역량 인증제, 예술교육 평가 표준 개발, 창작지원 사업과 연계한 평가 지표 마련은 예술 직무의 사회적 신뢰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의 장인적 학습과 삶의 질, 성취 간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와 확장된 접근을 통해 이론적·실천적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적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리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확장적 표집이 요구되며,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무용 장르를 포괄하는 샘플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 방식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기억 오류 등의 한계를 수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 동작 분석 등 정성적 자료 수집 방법을 병행한 혼합연구 설계가 바람직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cross-sectional) 설계에 기반하고 있어 장인적 학습과 성취 구조의 시간적 변화를 포

착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longitudinal) 설계를 통해 장인적 학습이 어떻게 축적·약화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인적 학습의 하위 요인이 무용의 감성적·예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감각적 몰입, 예술적 영감, 미적 판단 등 무용 고유의 정서·미학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과, 이와 연계된 이론적 보완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삶의 질 구성 요소 또한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주관적 안녕감 지표를 넘어, 직무환경, 사회적 인정, 예술 자율성, 신체 회복력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 척도가 요구되며, 특히 직군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도구 개발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강여주, 이광호(2007). 직업 무용수의 신체 이미지 분석.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5(3), 257-271.
- 구선영(2018). 모험관광객의 체험이 플로우, 만족,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권선영(2017). 무용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무용의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무용향유체험의 질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권순표, 김근호(2022). 해군 장교의 조직후원인식이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직무 재구성을 매개로.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48(1), 142-161.
- 권현수, 김정화(2025).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비교.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8(1), 91-106.
- 김귀원(2014). 학습, 혁신역량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7(2), 380-420.
- 김만규(2023). 사회적 자본이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성민, 문희원(2024). 발달장애 직장인의 삶의 질에 대한 경험과 평생학습 지원 요구 탐색. 특수교육논총, 40(1), 193-225.
- 김의철, 박영신(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 1-28.
- 김정인(2024). 노인의 사회안전 인식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36(3), 565-589.
- 김주연, 장유경(2016). 무용전공자의 성취목표성향이 열정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5(5), 953-965.
- 김초하(2022). 공연예술 공공지원과 공동체의식,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9(4), 397-409.
- 김한성(2019). 스마트 시티 서비스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김형남(2022). 민간현대무용단의 혁신역량이 무용단성장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0(1), 93-110.
- 김흥규, 유현정(2004). 한국 성인의 삶의 질 척도 개발. Andragogy Today, 7(3), 65-101.
- 노한나(2022). 크루즈 관광객의 자아 이미지·기능적 일치성이 여행 만족, 행복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 박승순, 한미경(2014). 무용 전공자의 능력민감과 무용열정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9(1), 129-139.
- 박재운, 정승혜, 안병주(2022). 무용전공 직군의 특성별 우울과 우울 대처 방안의 차이: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별 구분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31(1), 607-617.
- 서재복, 임명희(2021). 중국 여성 평생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평생학습 역량, 삶의 질, 학습만족도 관계 연구. 교육종합연구, 19(3), 119-133.
- 서재성, 김수경(2022). 무용 삶의 질 척도 타당화. 코칭능력개발지, 24(1), 23-31.

- 송시윤(2019). 직업무용수의 성취목표 성향과 자기관리가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무용역사기록학 (SDDH)*, 55, 161-178.
- 신정택, 박윤식(2024). 노인의 신체활동 유형이 불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9(1), 161-166.
- 오혜성, 변상해(2020). 자활사업참여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615-623.
- 유경훈(2013).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6), 2700-2706.
- 유보람, 김근호, 장원섭(2024). 임파워링 리더십과 장인적 성취의 관계에서 직무 재구성(Job Crafting)의 매개효과와 일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성인계속교육연구*, 15(1), 53-89.
- 이명자(2017). 무용전공대학생의 성취목표성향과 실기자신감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8, 259-272.
- 이명자(2022). 실용무용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무용효능감이 무용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연구*, 40(1), 91-115.
- 이미숙(2019).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삶의 질, 인지, 심리·정서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15(3), 232-240.
- 이민영, 장원섭(2024). 조직후원인식이 장인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직무 열의의 매개효과와 일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기업교육학회*, 26(3), 125-152.
- 이수연, 박인자(2018). 무용수 긍정심리자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7(5), 329-349.
- 이승곤(2021). 숲 체험적 경험을 통한 여가만족과 웰니스 구성요인, 삶의 질 간의 구조적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승영, 최지영(2021). 노인학습자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 관계: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8(3), 245-271.
- 이은정, 이운경(2024). 청소년의 수면의 질과 우울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31(3), 461-490.
- 이정아(2024). 경력 단계에 따른 장인적 학습과 장인적 성취,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Meaningful Work)의 구조 관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정아, 장원섭(2024). 경력 단계에 따른 장인적 학습과 장인적 성취, 조직지원인식, 일의 의미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43(4), 101-129.
- 이주연(2016).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자신감, 무용몰입, 무용능력성취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3(2), 29-40.
- 이진희, 지성주, 김연희, 장원섭(2024). 임파워링 리더십, 장인적 학습, 일의 의미, 정서적 조직 몰입의 구조적 관계: MZ 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6(1), 33-73.
- 이호진, 최지, 예고, 민석, 장경진, 장원섭, 매디슨(2021). 임파워링 리더십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장인적 학습의 매개효과와 일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미래교육학연구*, 34(3), 53-82.
- 임선영(2018). 안무가는 무엇으로 무용수를 움직이는가. *한국무용과학회지*, 35(1), 95.
- 장경진, 이호진, 장원섭(2021). 장인적 학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Andragogy Today*, 24(2), 71-105.
- 정향진, 류경민(2010). 호텔 조리사의 사회적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성취욕구에 미치는 영향-삶의 질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4(2), 235-258.
- 차은주, 안병순(2017). 지식기반사회에서 무용 인적자원의 역량 증진 전략. *한국체육학회지*, 56(3), 513-526.
- 최경희(2011). 사회적 소통으로서 무용교육의 힘: 그 의의와 가치. *한국예술연구*, (3), 85-109.
- 최선(2003). 무용전공여고생의 무용참가와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1), 735-742.
- 최솔, 이정아, 최현식, 김은수, 장원섭(2021). 장인적 영향력 척도개발 및 타당화. *직업능력개발연구*, 24(1), 119-145.
- 태혜신(2009). 전공무용장르 및 무용역할학습 정도와 무용정체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8(2), 1425-1433.
- 허민지, 김주연(2022). 대학 무용전공자의 성장마인드셋이 그릿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24(3), 45-52.
- 홍애령, 석지혜, 임정신, 오현석(2011). 무용수의 전문성 발달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23, 175-193.
- 황성우, 최석환(2015). 무용전공대학생의 자기관리와 무용성취 간에 무용자신감의 매개효과검증. *코칭능력개발지*, 17(1), 35-43.
- An, B. J., Jung, S. H., Ahn, G. H., & Kim, J. H. (2025). The process by which BTS's star attributes lead to loyalty through global fans' need fulfillment and satisfaction: Implications for tourism marketing. *Tourism and Hospitality*, 6(3), 126.

- Deci, E. L., & Ryan, R. M. (2012). Self-determination theory.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1(20), 416-436.
- Hackman, R., Lawler, E., & Oldham, G. (2015). *Job characteristics theory*. In *Organizational Behavior* 1 (pp. 75-93). London: Routledge.
- Jung, S. H. (2023). Does workplace spirituality increase self-esteem in female professional dancers?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m trust. *Religions*, 14(4), 1-31.
- Kim, J. H., Jung, S. H., & Choi, H. J. (2023). Antecedents influencing SNS addiction and exhaustion (fatigue syndrome): focusing on six countrie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42(15), 2601-2625.
- Kim, J. H., Jung, S. H., Seok, B. I., & Choi, H. J. (2022a). The relationship among four lifestyles of workers amid the COVID-19 pandemic (work-life balance, YOLO, minimal life, and stayca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ith a focus on four countries. *Sustainability*, 14(21), 1-31.
- Kim, J. H., Kim, K. J., Park, B. T., & Choi, H. J. (2022b). The phenomenon and development of K-pop: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factors of K-pop and the national image, social network service citizenship behavior, and tourist behavioral intention. *Sustainability*, 14(6), 1-30.
- Kim, J. H., Kim, Y. R., Jung, S. H., Choi, H. J., & Kwon, J. H. (2022c). The effects of cluster collaboration and the utilization of big data on business performance: A research based on the expansion of open innovation and social capital. *African Journal of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14(4), 1032-1049.

ABSTRACT

Analyzing the Relationships Among Craft-Based Learning, Quality of Life, and Craft Achievement:

Evidence from Dance Professionals

Jinyoung Le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raft-based learning on quality of life and craft achievement among professional dancers, choreographers, and dance educators. Using self-report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440 respondents between May and November 2024, we emplo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a series of hypothesized relationships. Four learning dimensions—tool-based learning, learning perseverance, open learning networks, and integrative learning—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All five dimensions, including autonomous learning, significantly predict craft achievement, with autonomous learning exerting the largest effect. While quality of life mediates the effect of some learning factors on craft achievement, its overall mediating role is limited. Subgroup analysis reveals heterogeneity in effect structures across occupational roles. For choreographers, only tool-based learning predicts craft achievement. Among educators, learning perseverance predicts quality of life, and autonomous learning, open networks, and quality of life predict craft achievement. For dancers, learning perseverance, integrative learning, and quality of life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raft achievement. These findings extend the applicability of craft-based learning theory in artistic domains and inform differentiated training and policy strategies based on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Craft-Based Learning, Quality of Life, Craft Achievement, Dance Profession, Choreographer, Educator, Dancer

논문투고일: 2025.03.26

논문심사일: 2025.07.11

심사완료일: 2025.07.28

* Ph.D. in Dance, Kyung Hee University